

26. 설렘이 세 번이면 그것은 사랑이 된다. 이육사 고추

첫 번째 설렘, 이육사란 이름 그 자체에 대하여

이육사 고추가 내게 다가온 첫 번째 설렘은 토종씨앗 박물관 설립을 마치고 미처 수집하지 못한 씨앗을 추가 수집할 때였다. 마침 여러 가지 고추씨들을 기부받아 씨앗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가온 이름이 바로 이육사 고추였다. 이육사? 그런 고추가 있어? 순간 얼마나 설렜던지… 나는 이육사 고추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쩌면 당연히 시인 이육사를 생각했다.

이육사!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이 아니던가? 그와 시대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우러러봄이 온통으로 한꺼번에 밀려왔던 이름이 바로 이육사였다. 그 경험이 비록 나에게만 있었던 충격은 아니었을 게다.

내가 알고 있는 이육사란 이름은 시인 이육사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참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시인 이육사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고추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동네에서 찾아낸 토종일까? 그것도 아니면 일제가 고춧가루 고문할 때 쓰인 고추인가? 어쨌든 나는 시인 이육사와 연관됐을 것이란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육사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닐진대 그런 이름을 지을 리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나의 상상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설부른 판단이 굳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설렘이 다가왔다.

두 번째 설렘, 2640번과 수인번호의 데쟈뷔.

씨앗에 대한 전문 상식이 없이 시작한 박물관 설립, 이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씨앗 보존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 오신 안완식 박사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사과하려고 했으니 이 자리를 빌려서 해야겠다. 내가 씨앗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실 토종 씨앗 자원 보존에 대한 소명감보다는 씨앗 유물 보존의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박물관이란 정체성의 관점에서 시작하다 보니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사과할 일이 생겼다. 그중에 특히 씨앗에 대한 전문 상식 없이 시작한 것인데, 덜컥 박물관을 설립해 놓고 보니 대표성은 갖췄는데, 상식은 미달이 된 것이다. 이육사 고추도 그 가운데 하나다.

첫 번째 설렘이 있은 한참 후 이육사가 2640이란 농촌진흥청 고정 종 넘버라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물론 내 무식한 씨앗 상식에 대한 탄로이기도 했지만, 그 부끄러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2640이란 넘버를 가진 씨앗을 그렇다면 이육사라고 부른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시인 이육사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받은 수인 번호 264번을 독립운동에 대한 떳떳함과 자신감으로 자신의 호를 이육사로 지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당당함과 대견함이 또 씨앗 이름을 붙이는 데 머뭇거림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씨앗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모른다. 한때 토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씨앗독립운동가라 부른 적이 있다. 그 우연에 또 한 번 찾아온 설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설렘, 아직 이육사 고추가 남아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다. 충북 산외에서 아직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에 심쿵! 무작정 답사길에 올랐다.

박물관에는 현재 2640고추와 산외에서 심던 이육사 고추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 이육사 고추와 산외 이육사 고추가 차이가 있단 말인가? 물론 그렇다. 그 차이가 바로 토종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산외에 도착한 것은 2022년 정월 초나흘이었으니 설 연휴 끝이었다. 조금 있으면 고

추 파종 준비를 할 시기이기도 했지만, 맘이 급해 빨리 만나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산외면 산대리에 도착했다. 마을은 길고 좁았다. 농토라고는 산을 살짝 늘려 놓은 좁고 짧게 내려앉은 산허리뿐이었다. 이 산허리에 좁은 곳은 집이 들어섰고, 조금이라도 넓은 곳은 농토를 만들었다. 그나마 냇가를 중심으로 깊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여울로 생긴 퇴적물이 만든 논이 겨우 쌀을 공급하는 삿갓배미가 전부인 마을이었다. 이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마을 사람을 만나 고추 이야기를 들었다.

- 벌써 원재찍 얘긴디…

지금 와서 찾느냐는 것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내돌리고 훙하니 돌아섰다. 하지 못한 말이나 있다는 듯이 뒤돌아보더니 그러잖아도 속상한 사람에게 한마디 보탠다.

- 지금 누가 그런 걸 심누. 장에 나가면 천지가 좋은 씨가 널렸는디. 종자 값이 아까울 때 얘기여!

도 저만치 가더니 도와준답시고 돌아오더니 한마디 더 한다.

- 지금은 고춘 안 심어. 사과로 배꼈어!”

이 마을은 문화 유 씨의 집성촌이었다. 집성촌이 씨앗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좋은 씨는 나누고, 더 좋은 씨를 만들기 위해 서로 교환하거나 농가 육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집안이라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육사 고추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서는 아무도 고추를 심고 있지 않았다. 먹으려고 심는 분들이 가끔 있었지만, 그마저 없어졌고, 지금은 양이 얼마 안 되니 육묘장을 만들기도 거폐스럽고 모두 장에서 모종을 사다 심고 있다 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나로서는 설렘만큼 실망이 컸다. 밭에까지 찾아가 이육사 고추 농가 육종에 자긍심을 가졌다는 유 선생도 만났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다.

- 그려? 누가 가지고 있다? 물르겄는다. 있다면 저쪽 초입에 사는 아재 아닐라나?”

사실 이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다면 포기하고 그냥 돌아섰을지도 모른다. 세 분을 만났는데 모두 같은 답이었고, 한 분만이 우릴 그곳에 한동안 머물게 했다.

그러던 중에 간신히 마을 분의 추측 속에 있는 유 선생의 아재 유인기 선생을 만날 수 있었다. 출타했다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한참 문을 두드리는데, 강아지들이 먼저 와서 꼬리를 내둘렀다. 강아지도 주인을 닮아 매우 친절했다. 뒷문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뒤이어 유 선생이 우리를 발견했다.

나이 들어 늦게 기독교로 귀의한 탓에 한참 동안 간증을 듣고 나서야 고추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됐다.

2640 고추가 산대로 들어 온 과정은 분명하지 않다. 처음 도입한 유인기 선생도 이웃 마을 모 씨가 소개해줘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한다. 처음 산대에 들어온 이육사 고추는 대과종이었다. 이런 2640 고추가 지역 고정 종으로 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지인의 우연한 추천으로 산대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주 운이 좋은 예다. 왜냐하면 이 고추가 문화 유 씨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인기 씨에게 왔다는 것은 더 행운이었다.

그는 매우 가난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성실했고, 농사 아니면 살길이 없던 사람이어서 꾸준한 노력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돈(?)에 목말라 했는지 인터뷰한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 내가 집을 나간 이유도 배가 고파서 나갔고,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이유도 바로 배가 고파서였어. 그러니 맨날 술이었지. 술 지랄이라도 해야 다음 날을 견뎠어. 그러다가 늦장가 가고 나서는 마누라한테 화풀이했지. 아니 마누라가 내가 가난한데 보태준 게 있어? 빼 간 게 있어? 지랄이지. 술깨면 맨날 선돈 갚다가 판났지.

선돈이란 조선의 신분제가 해체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재분배는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세습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데, 돈이 없으니 명년에 그 집의 일을 해주겠다고 미리 돈을 받아서 쓰는 일종의 노동의 고리 대금이었다. 선돈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돈을 대 준 집에서 언제 어떻게 부르든지 여하간에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품값도 대충 알아서 쳐준다는 것이다. 머슴이면 일 년 내내 새경이라도 받으며 쉬는 날이라도 있지, 이것은 하루 일당으로 그 집의 일 머슴이나 다름없었다.

- 그러는 상황에 담배가 들어 온 거. 생각혀 봐. 이 좁은 땅에서 돈이 되는 게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환장했지. 일 년 농사 잘 지면 선돈을 쓰지 않아도 겨울을 날 수 있능겨. 그러다가 담배보다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고추라는 거지. 고추를 심으면 선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을 수 있다잖아. 처음에는 무조건 고추라면 다 심었어. 그게 진짜 재래종이지. 이때 이육사공 고추가 들어 온 거. 누군지는 확실하지는 않아. 나는 건달 비스무레한 그놈한테 받았응께.

그는 이것을 성실한 조카에게 맨 먼저 알렸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추이니 다른 누구보다 조카에게 알려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맞는 일이었다. 이것이 산대에서 몇 년에 걸쳐 그들의 손을 거치면서 말리기 쉽고 수량이 많은 품종으로 자연 육종이 되고 식재가 일반화되면서 그들은 고추 이름을 이육사 고추라 불렀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 온 대과 종 2640 고추와는 다른 고추가 탄생한 것이다.

실제 2640 고추의 첫 출현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재래종에서 계통 분리하여 육성한 것이 2640 고추의 시작이었다. 당시 진흥청의 고정 종 넘버가 2640으로 붙여지면서다. 그 뒤 1968년에 이르러 우량종으로 육성되어 농가에 보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2640 고추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자연 교배되고 농가의 필요에 따라 선발 고정된다. 어쩌면 전혀 다른 고추로 발전돼 간다. 처음 이 마을에 이육사공 고추가 들어올 때는 청룡초가 함께 들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 고추가 산대로 들어오면서 마을 환경과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 좋은 고추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 육종가들이 보태지면서 2640과는 전혀 다른 이육사 고추가 탄생한 것이다.

본래 2640 고추는 신미가 약하나 숙기가 빠르고 맵지 않은 풋고추용으로 선발된 재래종이었다. 과형은 크고 과피가 두꺼워 건 고추로 말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추였다.

이들의 노력에 따라 숙기가 빠른 본래의 2640 고추가 조금씩 건초용으로 변형되기 시작한다. 그 계기가 고추 값이 크게 올라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매운 고추를 선발하게 된다. 이때 문제는 말리는 것이었는데, 때마침 이 마을은 그때까지 담배가 주 소득원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담배 건조장을 가지고 있었다. 담배 건조장을 이용하여 고추를 말리게 되니 고춧가루를 내는 상인들에게는 최상의 상품이 된다. 이로써 고추가 소득 작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집성촌의 특성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환경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고추를 얻기 위해 조카 삼촌 간에 농가 육종에 들어간다. 이때 개입한 고추가 바로 청룡 고추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640 고추는 크기가 있지만 하고 착과성이 떨어졌으나 비로소 점차 크기는 적당히

작아지고 착과성이 좋아진 「이육사 고추」로 탄생하게 된다.

이 작업은 약 30여 년에 걸쳐 이뤄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소득을 쫓는 아주 외진 산골 마을의 소득 주도성의 작목 바꾸기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고추에서 사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육사 고추가 사라진 이유가 되기도 했다.

지금 그곳에는 이육사 고추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는 이육사 고추를 이야기하면 마치 영웅담을 이야기하듯 신이 나고 생기가 돈다. 혼자 사는 집에 그의 영웅담은 남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는 고추로 먹고 살게 된겨!

후일담이지만, 이 청룡 고추는 산대에서 고정된 이육사 고추와 만나 또다시 몽탁 고추를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청룡초와 이육사, 몽탁 고추는 형제지간이랄까? 이 삼 형제 고추는 신품종의 육성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데 결정적인 것이 탄저병이었다. 고추 재배 면적이 적을 때는 탄저병이 심하지 않았지만, 재배 면적이 늘면 늘수록 탄저병이 성하기 시작했다. 이 세 고추는 유독 탄저병에 약했는데, 고추 수확이 한창일 때 탄저병이 걸려 농사를 버리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가 마지막까지 이육사 고추를 놓지 못한 이유는 풋고추 맛은 일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본디 풋고추용으로 고정된 고추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육사 고추는 인간이 돈을 따라 풋고추용을 건고추용으로 바꾸면서 생긴 사건으로 다시 2640 고추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고추로 먹고 살게 된겨! 그 중심에 이육사가 있구. 오디 한 번 볼 참이여?

그는 배배 꼬인 고추 꼬투리 한 개를 성경 책장에서 꺼내더니 흐린 불빛이 퍼져 있는 형광등 불 아래 비춰 본다. 그가 혼들자 달그락거리며 씨가 한쪽으로 몰리고 그의 청춘이 **기운** 노쇠한 찡그린 눈도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 박물관 한댔지? 가져가!

말은 안 했지만, ‘이건 내 청춘을 주는 거니까. 워디 박물관에 내 청춘도 보관해 둬 봐.’라는 듯이 이육사 고추를 내밀었다. 그리고 내게 마지막 설렘이 고추를 받는 내 손의 떨림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